

사찰건물의 관광 및 교육문화를 위한 상생발전 연구

- 영월지역을 중심으로 -

조원섭*, 오승하**

Study on the Coexistent Development of the Touristic and Educational Cultures of Temples

- Focused on Youngwol region -

Won-seob Jo*, Seung-ha Oh**

요약 본 연구는 사찰건물의 관광 및 교육문화를 위한 상생발전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4년 6월 13일부터 11월7일까지 영월군의 사찰을 대상으로 실태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척도문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건물소유자와 관리자 면접을 실시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WIN 18.0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역사적 배경에서 문화재적 가치로 매우 귀중한 지역의 문화자산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주요건물에서는 일반적인 사찰에서 보기 드문 다양한 특색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지역의 특화된 관광자원화가 요구된다. 셋째, 관광 및 교육문화자원화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파악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전통사찰 건물 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전통사찰문화와 현대문화를 아우르는 디지털관광으로의 발전전환이 시급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coexistent development of the touristic and education cultures of temples. For the study, an investigation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emples in Youngwol and a set of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13th June to 7th November in 2014. Th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field observations and the interviews with building owners based on the criteria and SPSSWIN 18.0 program was used for statistical process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temples are found to be the extremely valuable local cultural assets with the cultural valu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Second, the major temple buildings show that they have the unique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found from other general temples, so it is necessary for developing the unique local tourism resources from them. Third, since the study shows that there is a lack of tourism and educational culture resources, so a relevant plan thereof is urgently require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n urgent necessity for the succession and the modern reinterpretation regarding the cultures of traditional temples, based on which a shift of viewpoint to the digital tourism, which covers both the traditional temple cultures and the modern cultures, could arise.

Key Words : coexistent development, educational culture, temple, tourism.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Museum Professor of Saekyung University (jws6013@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Education Professor of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Received : November 02, 2014

Revised : November 19, 2014

Accepted : December 2, 201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찰이란 흔히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성스러운 곳으로 인도어로 상가라마라고 하며[1], 이 사찰이라는 말은 원래 외교사절을 관장하는 관청을 뜻하던 것이었는데, 인도(印度)의 스님들이 처음에 사(寺)에 맞이해서 거주케 한데서 비롯되어 점차 스님이 거주하는 곳을 사찰이라 하였다 한다[2]. 이와 같은 사찰건물은 전국적으로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문화가 우리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교의 시작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정치적·문화적·종교적으로 官(관)과 民(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치적인 예로는 고대국가(삼국)는 정치적으로 불교를 공인해 왕권강화를 이룩하였고,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함께 싸우는 국민의식을 고취 시켰다. 종교적인 예는 종교계의 지도층들이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 금속활자로 만들었고 이것을 사찰에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불교는 정치적·문화적·종교적인 의미로 사찰이라는 한 공간에 집약시켜 문화적 공간으로 넓혀갔으며, 그로부터 1,000여년이 지난 지금 옛 선조들의 다양한 문화유산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문화재청 자료[3]에 의하면 영월군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12곳, 도지정 16곳, 문화재자료 10곳, 무형문화재 1곳 등 39곳의이 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를 보유한 법흥사, 문화재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보덕사와 금몽암의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건물과 연계한 관광 및 교육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사찰에 대한

역사적 배경, 사찰의 주요 구성건물과 특징, 사찰건물을 이용한 관광 및 교육문화자원으로써 지역중심의 상생발전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전통역사 문화시설로의 기본방향을 전환을 통하여 관광객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누릴수 있도록 보존·보완·개선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연구는 다음[1,4,5,6]과 같다.

조원섭[1]은 신록사의 건축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사찰의 유래와 사찰의 구성 전반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건축양식학적 분석을 통하여 사찰건축의 전반을 체계화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는 사찰건축물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한 구성과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관광객 및 교육문화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안태우[4]는 불교 사찰 요사 건축의 보전관리를 중심으로 요사의 보전관리에 대해 요사채의 현상과악을 위해 배치, 건축형식, 건립연대, 문화재지정 현황과 보전관리 관련 공사현황을 조사한 뒤, 신축, 증·개축, 보수, 이진, 철거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보전관리 사례를 분석했다. 이 결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사찰건물의 보전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건축물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통 구조와 형태를 따라야 하며, 수리는 고증에 의하고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형성된 사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신석래[5]는 전통목조사찰 건축연구는 계획적 측면에서의 공간배치나 의장적인 측면인 공포 형태의 분류에 근거한 양식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 되었고 목조사찰건축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이결과는 이러한 사찰건축의 구조적 연구를 위하여 송광사 대웅전을 해석모델로 사용하여 고정 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해석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통사찰건축의 정확한 구조해석을 위해서는 구조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전통목구조의 정확한 지식이 필요함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효립[6]은 사찰음식의 문화관광을 통하여 한국 전통 사찰음식의 가치를 선사상과,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건강식임을 확인해보고, 사찰음식의 문화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을 한국의 불교콘텐츠와 함께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결과는 불교는 공통적으로 불가의 가르침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고 먹는 것을 수행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지만, 나라마다 조리법이 달라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찰음식의 또 다른 정신적 가치는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찰음식에 내재된 동양사상과 더불어 사찰음식의 문화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은 관광지 매력성에 비춰봤을 때 사찰의 자연환경, 금기 및 규범에 따른 사찰음식의 문화적 특징, 다양한 사찰음식의 종류, 불교의 문화자원 등 내재된 무형적, 유형적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음식을 관광 상품화하는 것은 사찰음식을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동안 선행연구의 동향은 사찰건축의 단편적 주제와 사찰의 건축양식, 건축의 보전과 관리, 전통목조사찰 건축의 연구는 계획적 측면, 사찰음식의 문화관광자원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관광객과 지역민을 위한 소득창출과 지역발전을 대상으로 한 사찰건물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사찰건물을 대상으로 관광 및 교육문화 전반의 경향을 살펴보고, 관광교육문화 정책수립 및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사찰의 역사적배경은 어떠한가?

둘째, 전통사찰의 주요건물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전통사찰의 관광 및 교육활용실태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사찰의 역사적 배경

사찰이란 불상과 보살상 등을 모셔 놓고 승려들이 거주하면서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그 가르침을 설하는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때로는 가람, 사찰, 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말로는 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진나라의 승려 순도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되었으며, 그 후 374년에는 승려 아도가 들어왔다. 고구려는 이들을 위해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창건하게 되는 데 이것이 고구려 사찰의 시초이다.

다음으로 백제에 불교가 전승되는데 바로 침류왕 원년(384) 승려 마라란타에 의하여 전승되고 이듬해 한산주에 사찰이 창건되었다[7]. 신라는 눌지왕 때 승려 목호자가 불교를 전승했으나 신도들이 없었다. 후에 양사승인 원표와 이차돈의 순교로 법흥왕 14년(527)에 국교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로도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불교를 발전시키고자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다[8].

2.2 사찰의 주요건물

사찰의 구조는 문, 종각, 탑, 금당(법당), 강당, 요사, 석등, 부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축물로 구성되고, 금당(법당)과 탑을 중심으로 일금당일탑식, 일금당이탑식으로 크게 분류하며, 지형에 따라 평지가람, 산지가람의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찰은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승유 억불정책으로 인하여 사찰들이 산중으로 은거하게 되었으며, 배치형식도 산지지형에 맞게 바뀌었고 규모도 축소되었다. 여기에 우리의 토속민 간신앙이 접목되어 우리만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토속민간신앙을 모시는 건물로는 산신각, 삼성각, 칠성각 등이 있다.

2.3 관광 및 교육문화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이란 인간과 문화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생활양식과 사고의 방법을 이해하는 형태의 체험적 교육문화관광으로 해석된다. 어원은 사전적의미로 보면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스며들어 있는 지역 또는 사람이 풍요로웠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로 말하고 있다. 결국 문화관광이란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해서 이행되는 관광으로 현지문화를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교육문화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9].

관광자원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동기, 관광의욕을 충족시키고, 관광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목적물로서 유·무형의 관광대상(자원)으로 매력성과 유인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또한 관광대상물(자원)은 관광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종다양하며, 관광대상이 될 수 없었던 자원도 대중관광시대에 자원으로 가치가 있어 각광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매력을 상실해 가는 대상도 있다. 그러므로 유·무형이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성을 가지면 교육문화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10].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3.1.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범홍사와 보덕사 그리고 단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금몽암을 중심으로 건축적 및 지역적 특이성이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건물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 하였다.

3.1.2 조사방법

조사는 연구대상 범홍사, 보덕사, 금몽암을 현장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건물소유 및 관리자

를 대상으로 직접대면 하여 면접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는 면접법[11]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찰의 관리주체, 설립연혁의 주요내용과 특징, 현재 전반적 관광 및 교육 운영실태, 주요건물의 실태와 특징현황과 보완점 등을 파악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4년 6월 13일부터 11월 7일 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찰건물의 관광 및 교육문화 활용실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척도문항을 관련 이론을 기준으로 객관성을 갖도록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및 건물소유와 관리자를 전수조사를 통한 사회조사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2 연구설계와 가설

3.2.1 연구설계

연구의 설계는 사찰건물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 및 지역민을 위한 관광과 교육문화의 상생발전 전반기 조사를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보완 그리고 발전방향 제시하여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및 관광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한다.

3.2.2 연구가설

연구가설은 관광객 및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관광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구축에 따라서 관광객의 만족도 증가와 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역관광이미지 구축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3.3 연구도구

3.3.1 역사적 배경

사찰건축의 역사적 배경 척도기준은 조원섭 [1]의 이론을 바탕으로 측정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사찰의 조성배경을 중심으로 사찰의 의미, 사찰의 어원적 뜻, 사찰의 원래 기능, 최초의 불교사

찰, 불교전래과정, 고구려말기 불교의 쇠퇴, 백제의 일본으로의 불교전래, 신라의 불교신봉과 사찰의 적극적인 조연과 조사대상 사찰에 대한 전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답하도록 하였다.

3.3.2 주요건물현황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건물현황의 조사 도구는 안태우[4]와 신석래[5]의 이론을 기준으로 측정문항을 구성하고, 현재 건축의 보전관리를 중심으로 현상과약을 위해 배치, 건축형식, 건립연대, 문화재 지정 현황과 보전관리 관련(신축, 증·개축, 보수, 이진, 철거)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보전관리 사례. 그리고 전통목조사찰 건축의 구성건물과 연구는 계획적 측면에서의 공간배치나 의장적인 측면인 공포의 형태 분류에 근거한 건축양식사에 대한 전반을 파악·분석하여 측정하였다.

3.3.3 관광 및 교육문화

조사대상 3개 사찰의 척도는 적멸보궁, 법당, 극락전(극락보전), 산신각, 조사전, 삼성각, 해우소, 칠성각, 우화루를 바탕으로 관광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에 정효림[6]의 사찰음식의 문화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사찰의 관광자원화 적용방안을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역중심의 교육 및 관광문화를 위한 자원화 방안 전반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조연을 조사하고 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역사적 배경 분석

사찰의 조성배경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1 법흥사

신라 진덕여왕 643년경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법흥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5대 보궁 중 하나이며, 사리탑 옆에는 자장율사가 수도하던 토굴이 있다. 법흥사는 신라시대 자장율

사가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창건한 흥녕사 절이다. 당시 징효대사는 당나라에서 문수보살의 진신사리 100과를 얻어다가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정선 정암사 등에 나누어 봉안하고, 이곳에 적멸보궁형 법당을 세웠다.

법흥사는 이들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이며, 징효대사는 법흥사 적멸보궁 뒷산에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했다고 한다. 때문에 적멸보궁 안에는 부처의 삼존불이 없고, 뒤쪽으로 뺨 뚫린 창만 하나 나 있는데, 이것은 산 전체가 부처의 몸이라고 전하는 법흥사 적멸보궁의 뜻이라 한다. 법흥사는 한때 2천여 명의 수도승이 운집하기도 했던 큰 가람이었으나, 수차례의 화재로 인해 절간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12].

4.1.2 보덕사

보덕사는 영월의 주산인 발산의 서쪽 기슭에 입지하여 서향하고 있는 옛 사찰로 신라 문무왕 8년(668)에 의상조사가 지덕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뒤, 고려 의종 15년(1161)에 운허선사와 원경국사가 극락보전, 사성전, 염불당, 고법당, 침운루 등을 증축하였다. 그 후 1457년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 유배되어 사찰명을 노릉사로 개칭하였다가 숙종 31년(1705) 한의선사와 천밀선사가 대금당을 건립한 뒤 영조 2년(1726) 6월에 태백산 보덕사로 개명한 장릉의 능사이다. 이는 장릉의 조포사찰(능이나 원에 딸려서 제향에 쓰는 두부를 말아서 만드는 절. 조포소라고도 한다.)로 예조에서 온 문관이 있었다고 하며, 현재는 극락보전, 사성전, 나한전, 칠성각, 산신각 등 여러 개의 전각과 5층 석탑 1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

4.1.3 금몽암

영월읍 영흥 12리 발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월 보덕사에 속해 있는 암자로 1984년 강원도문화재자료 제25호로 지정되었다. 금몽암은 신라 문무왕 20년(680)에 의상조사가 지덕암으로 창건하여, 조선 세조 3년(1457)에 금몽암이라 개

칭하였다. 그 후 광해군 2년(1610)에 군수 김택룡이 증축하면서 노룡사로 개칭하였으며, 다시 영조 46년(1770)에 금몽암이라 개칭되어 보덕사에 예속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단종(1441~1457, 재위 1452~1455)이 영월로 유배된 후 이 암자가 궁에 있을 때, 꿈속에서 유람하던 곳과 흡사하다고 하여 ‘금몽암’이라고 하였다 한다. 평면 형태는 ‘ㄱ’자 형 건물과 누각식 2층 건물이 이어지며, 건물 뒤쪽에는 산운각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다. 근처에 장릉이 있어 단종의 원당으로 여겨지며, 고요한 자연 속에 스러지듯 앉아있는 모습이 발길 드문 꿈속의 암자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4.2 주요건물 분석

사찰의 주요건물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범홍사

1) 적멸보궁

원래의 적멸보궁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아담한 맞배지붕 건물이었으나, 1993년에 범홍사에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팔작지붕에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로 재건하였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에는 부처님의 상을 모시지 않는데, 이것은 산 전체가 부처의 몸이라고 전하는 범홍사 적멸보궁의 뜻이라 한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빈 방석 위에는 이미 부처의 큰 가르침이 있는 것이며, 적멸보궁 뒤에는 석실과 고려시대의 부도가 있다[12].

건물구성 현황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폐쇄형평면으로 통간의 우물마루로 꾸며져 있고 구성은 다듬돌기단상에 원형주초석위에 원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그 위에 다포식공포를 결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기와지붕에 청기와를 잇고 있으며, 화려하게 단청을 하여 마감을 하고 있다. 이 불전은 적멸보궁으로써 건물 후면부에 벽을 개방해 놓은 것과 청기와에 용머리치미를 잇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면 공포부분의 주두부에 용머리조각상을 부착하고 있는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2) 산신각

이 건물은 적멸보궁으로 오르기 직전에 좌측 경사진 곳을 오르면 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우리민족 고유의 토속 신을 모셔놓은 조그마한 전각이다. 건물구성 현황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폐쇄형평면으로 통간의 우물마루로 꾸미고 있고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원형정평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상부에 이익공으로 결구하고 있는 연등천정의 제형대공으로 꾸며진 3량집이다. 그리고 지붕은 겹처마의 맞배기와지붕으로 측면은 풍판을 달고 있고 화려하게 단청을 하여 마감을 하고 있다.

3) 극락전

극락전은 일반적으로 아미티불을 주불로 모시는 전각이며, 극락의 세계를 상징하게 된다. 이 건물은 범홍사 원음루를 지나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에 재축한 건물이다. 건물구성 현황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폐쇄형평면으로 통간의 우물마루로 꾸며져 있다.

구성에는 다듬돌기단상에 원형정평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상부에 다포식공포로 결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기와지붕이며, 화려하게 단청을 하여 마감을 하고 있다. 이 불전은 기존의 다포식 건물을 해체 복원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재축을 하고 있어 보존과 관리, 유지·보수 등 문화재적 차원에서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지니고 있는 건물이다.

4) 조사전

이 조사전은 범홍사 극락전을 지나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데, 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종파를 세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들의 영정을 모시는 전각을 말한다. 건물구성 현황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폐쇄형평면으로 통간의 우물마루로 꾸며져 있으며,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주를 세우고 그 상부에 이익공공포를 결구하고 지붕은 겹처마의 맞배기와지붕에 연등천정의 제형대공으로 꾸며진

3량집이다. 그밖에 측면으로 풍판을 달고 있으며, 화려하게 단청을 하여 마감을 하고 있다.

5) 삼성각

이 건물은 범홍사 조사전 뒤편으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며, 건물구성 현황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폐쇄형평면으로 통간의 우물마루로 꾸며져 있다. 구성은 다듬돌기단상에 원형정평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상부에 이익공공포를 결구하고 있고 지붕은 겹처마의 맞배기와지붕에 측면으로 풍판을 달고 있다. 그리고 건물은 화려하게 단청을 하여 마감을 하고 있는 우물반자 천정으로 꾸며진 5량집이며, 이 건물에서는 건물의 격에 맞지 않게 주초석에서 장주형정평주초석을 축조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범홍사는 우리나라의 5대 적멸보궁중의 하나로써 그 가치가 높고, 전체적으로 산지가람의 배치를 보이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및 교육문화의 장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2.2 보덕사

1) 극락보전

이 건물은 보덕사의 천왕문을 지나 석탑을 두고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1금당 1탑식으로,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다. 건물구성 현황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폐쇄형평면으로 통간의 우물마루로 꾸며져 있으며, 전면 중앙 칸은 4짝의 빗살문, 양쪽 옆 칸은 각각 3짝의 빗살문을 달고 있다. 구성은 다듬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상부에 다포식공포로 결구하고 있고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기와지붕으로 건물전체는 단청을 하여 마감을 하고 있는 조선후기의 다포양식을 갖추고 있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2) 해우소

해우소는 근심을 해결하는 장소라는 뜻의 화장실을 이르는 말이다. 건물구성은 전통적 형식을 갖춘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경사지에 세

운 2층 누각식 건물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내부공간의 구성은 도리방향으로 전후 2열로 나누어 각각 6칸씩의 대면소를 배치하면서 전후벽면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였다.

평면구성으로 12명을 동시에 수용하고 동시에 남녀의 사용을 구분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으며, 상층의 각 기둥에 비해 하층 원기둥은 매우 굵어 일반적인 2층 누각식 건물의 상·하층 기둥 비례를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례가 오히려 이 건물의 매우 투박하면서도 견실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 해우소는 상량문을 통해 고종 19년(1882)에 세워진 건물임을 알 수 있으며, 오래된 사찰 해우소 건물로는 강원도 내에서는 희소가치를 지니고 높다고 볼 수 있다[13].

3) 산신각

이 건물은 극락전 후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다. 건물구성 현황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폐쇄형평면으로 통간의 우물마루로 꾸미고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상부에 초익공으로 결구하고 있는 우물천정의 3량집으로 겹처마의 맞배기와지붕에 풍판을 달고 있으며, 단청을 하여 마감을 하고 있다.

4) 칠성각

이 건물은 산신각을 지나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다. 건물구성 현황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폐쇄형평면으로 통간의 우물마루로 꾸미고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상부에 민도리계통으로 결구하고 있다.

지붕은 홑처마의 맞배기와지붕에 측면으로 풍판을 달고 있다. 그리고 건물은 단청을 하여 마감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연등천정의 원형제형 대공으로 꾸며진 5량집이다.

5) 삼성각

이 건물은 칠성각을 지나 경내에서 가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다. 건물구성 현황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폐쇄형평면으로 통간의 우물마루로 꾸미고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

돌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상부에 이익공으로 결구하고 있고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기와지붕으로 조영되어 있으며, 단청을 하여 마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덕사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고려시대 초의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전통형식을 갖춘 해우소(1882년 건립)도 옛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및 교육문화의 장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3 금몽암

1) 범당과 우화루

금몽암의 우화루와 범당은 사찰건물의 형태가 아닌 일반 상류주택의 형태와 누각건물의 형태를 조합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 해체·보수를 하였다. 이 건물은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자연과 잘 어우러져 조영되어 있다. 건물현황은 정면 중앙에 범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으로 부엌과 방이 꾸며져 있고 좌측으로 우물마루의 대청과 텃마루로 짜여진 우화루와 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평면형식은 정면에서는 ㄱ자형으로 보이고 범당 후면으로는 우물마루의 대청과 텃마루로 꾸며진 상류주택의 ㄷ자형의 평면형식을 보이고 있는 특이한 평면형식이다. 우화루의 하부는 2칸 중 1칸은 판벽으로 막음하여 수장고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 상부 루마루의 대청에서는 조망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널문을 설치하고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루하부에는 팔각기둥으로 그리고 루상부와 전면부는 원형주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상부에 초익공식공포로 결구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기와지붕이며, 건물전체는 단청을 하지 않은 백골집으로 마감을 하고 있다.

2) 산신각

우화루와 범당건물의 뒤편으로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산신각이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원형주의 초익공으로 조영되어 있으며, 겹처마 맞배기와지붕을 이루고 있다. 건물은 단청을 하여 마감을 하였다.

이와 같이 금몽암의 우화루와 범당은 일반적인 사찰건물의 형태가 아닌 일반 상류주택의 형태와 누각건물의 형태를 조합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특이한 건축구성을 보이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로써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며, 지역의 특색을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파악되었다.

4.3 관광 및 교육활용 분석

현재 영월군의 3대 전통사찰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역사·문화·정신·전통사찰건물의 학문적 측면과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사찰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불교대학강좌 프로그램, 부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광객과 지역민을 위한 관광 및 교육문화를 위한 상생발전은 차별화가 없는 일반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관광자원의 유지, 관리, 운영, 홍보 등의 확실성 그리고 지역행사의 주제와 부대행사의 유사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흡, 관광자원과 지역 축제문화 공간으로의 접근성 부족 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찰건물의 관광 및 교육문화를 위한 상생발전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찰건물 각각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나라 사찰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수용하면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조성되어 있다. 범홍사는 자장율사 그리고 보덕사와 금몽암은 의상조사에 의하여 창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우리지역의 전통사찰이 [7],[8]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확실한 관광자

원화로서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지역의 전통사찰은 역사적 근간이나, 문화재적 가치로 매우 귀중한 지역의 문화자산 인 것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사찰의 주요건물에서는 일반적인 사찰에서 보기 드문 특색을 각각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범홍사는 5대 적멸보궁중의 하나이고, 보덕사는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해우소가 있으며, 일반사찰의 건축양식에서 벗어나 상류주택의 법당을 조영하고 있는 금몽암 또한 특이한 구성수법이다. 이결과는 안태우[4]와 신석래[5]에서 벗어난 특이성을 보이고 있는데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사찰만이 지니고 있는 특색 즉, 범홍사의 적멸보궁, 보덕사의 해우소, 금몽암의 한옥형태를 지닌 법당을 활용한 관광 및 교육문화자원으로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관광 및 교육활용에서는 템플스테이, 불교대학 강좌 프로그램 그리고 부설유치원 정도만이 운영되고 있어 관광 및 교육문화자원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파악 되었다. 이 결과는 정효림[6]의 사찰음식을 통하여 문화관광상품화의 가능성 연구와 조원섭[14]의 유교건물을 활용한 관광문화 활성화와 일정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 의미는 관광 및 교육문화를 위한 상생발전을 위하여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자원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영월의 다양한 역사·전통문화와 관광자원 그리고 전통건물을 연계한 각종 체험, 축제, 전시, 행사,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이미지 부각으로 우리지역 사찰건물의 문화가치를 재해석하고 이를 재조명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개발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

6. 결론

이상의 연구에 따른 결론과 향후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찰스테이를 통하여 지역중심의 전통사찰문화 관광과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여기에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상생발전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한다.

둘째, 우리지역의 전통사찰생활상을 담은 프로그램 즉, 산사의 하루, 사찰음식체험, 다례교실, 지역특성을 담은 사찰건축 캠프 등을 운영한다.

셋째, 사찰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장으로 즉, 산사음악회, 산사에서 즐기는 영화, 사찰문화콘서트, 전문가 초청강연회, 서낭제·무속신앙 재현으로 볼거리 제공, 사찰관련 기념품·공예품 판매, 사회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향후 전통사찰건물 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전통사찰문화와 현대문화를 아우르는 디지털관광으로의 발상전환이 시급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영월군, 학술용역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2014.(발체).

References

- [1] Wonseob Cho, Study on the architecture style of Sileuksa Temple, Seokyeong University collection of thesis, Vol. 6, pp.91~102, 1999.
- [2] Taekgyu Kim, Manual of local history research institute, pp.253~254, Korea local history research, 1990.
-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ebsite, www.cha.go.kr
- [4] Taewoo Ahn, Maintenance management of Buddhist temple dormitory buildings, Sung

gyun kwan graduate school, 2012.

[5] Seoungrae Shin, Study on the structure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temples, Jeonnam industrial graduate school, 2001.

[6] Hyorim Jeong, Temple foods and cultural tourism: Study on the reviewing method of the values of cultural contents,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0.

[7] Kyeongho Jang, Traditional architecture of Korea, p.90, Moonye publisher, 1992.

[8] Exhibiton of Korean Buddhist Art, Buddhist architecture, p.237, Korea color and culture publisher, 1994.

[9] Yongjun Cho et. al., Cultural tourism resources, pp.18~19, Daewang publisher, 2009.

[10] Cheolhyeon Seo et. al, Descriptive theory on tourism resources, pp.19~20, Daewang publisher, 2005.

[11] Seok-jo yoon,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p.47, Gongdongchae, 2012.

[12] Youngwol-gun office, : <http://www.ywtour.com/> 2014. 9.30

[13] Museum of Hanrim University .. Youngwol-gun, History and cultural remains of Youngwol-gun, 1995.

[14] Wonseob Cho, Activation plan using the Confucianism buildings in Youngwol region, Scholarly journal of museum districts, Vol. 1, Issue 1, 2014.

저자약력

조 원 섭(Won-seob Jo) [정회원]



- 2004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공학박사)
- 1997년 3월~현재 : 세경대학교 박물관과, 산학중점 교수

<관심분야 > 전통건축, 문화재, 관광, 건축디자인

오 승 하(Seung-ha Oh) [정회원]



- 2012년 2월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2년 3월~현재 : 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육학과 사회복지상담(박사과정)
- 2014년 현재 : 세경대학교 미술치료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한부모가정, 노인의 성, 노인상담